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 렬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른새벽 렬명거리건설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낮에 볼 때에도 회한했는데 어둠속에서 보니 그것대로 불만 하다고, 불장식까지 하면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건설장에 흐르는 휘황한 불빛은 마치도 어둠을 밀어내는 렬명처럼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내 조국의 동이 터오는것만 같다고, 말그대로 렬명거리라고 걱정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북부회복복구전투로 건설을 석달이나 중지하였는데도 벌써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진행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추운 날씨에도 타일붙이기를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를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끝내었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양지쪽에 장식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도록 태양발전판을 설치하였는데 착상을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사이의 기단층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채광창으로 된 지붕을 씌워 련결통로종합봉사망을 꾸려놓았는데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렬명거리에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을 구색이 맞



게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록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렬명거리가 볼수록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환경보호에도 좋고 휴식장소로도 리용할수 있도록 40층이하의 건물옥상들에 지붕녹화기술을 도입하였을뿐만아니라 거리의 곳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잔디를 심어 방대한 녹지면적을 조성하였는데 잘하였다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더 멋있을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려명거리의 모든 건축물들의 외벽색깔을 록색과 흰색으로 통일시켰는데 거리를 거니르라니 마치도 이갈나무와 붉나무가 설레이는 백두의 수림속에 들어선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매 건축물들이 생김새도 멋있고 색깔도 마음에 든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려명거리의 초고층살림집지구는 물론 다층살림집지구도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특색있게 건설되었다고 하시면서 초고층건축군과 다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

루며 일떠선 렬명거리는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렬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렬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북돋아주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들어 립체전을 벌릴데 대한 문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여 마감공사에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난방과 조명보장대책을 더 잘 세우며 급배수계통시운전을 비롯한 준공검사를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

제, 렬명거리에 봉사망들을 전개하는 단위들에서 준공식이 끝나는것과 함께 봉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운영준비를 착실히 해놓을데 대한 문제 등 렬명거리건설완공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리마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렬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다시금 강렬하게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렬명거리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일떠서는 렬명거리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반영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깃들어있는 거리,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을 과시하는 거리,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태양절까지는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내달림으로써 렬명거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자고 다시금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 강성번영의 지름길

오늘날 공화국에서 희망찬 로정도, 시간표따라 강국건설을 앞당기는 힘은 과학기술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분야의 선두에서 과학기술이 기관차가 되어 기운차게 달리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과학기술중시로 일관되어있다.

그이께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과학기술중시의 뜻과 의도는 비상히 원대하고 특출하다.

기관차는 힘과 속도, 안정성에서 비할바없이 위력한 견인기이다.

과학기술이 기관차가 되어 나라의 전반을 끌며 기운차게 달릴 때 강국건설은 활력있게 종착점을 향하여 매진할수 있다. 꿈과 리상을 실현하자고 해도 과학기술이고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도전을 제압하자고 해도 과학기술이다.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면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고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것, 과학기술발전에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는것, 모든 부문사업을 과학화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하여서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의 높은 뜻이고 경지이다.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과학세계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며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적극 도모하고있다.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성공과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에서의 성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 응용 대출력발동기시험성공으로 우주정복의 넓은 길이 닦아지고 산업부문에서 무인화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농업분야에서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을 비롯하여 경제장

성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된것은 공화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준공페르를 끊으시어 2016년의 첫문을 과학으로 여시고 온 한해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는 곳들과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현실인것이다.

그이께서 기계설비전시장을 찾으신 그날 새로 만든 80P 트랙도르에도 올라보시고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제작한 농기계들을 보시며 그처럼 기뻐하신것도 자강력의 산

물, 과학기술이 낳은 열매이기 때문이었다.

우주과학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로 공인되어있다. 현대과학과 첨단기술이 다 도입되는 우주개발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첫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자기의 운반로켓으로 자기의 발사장과 자기의 발사대로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나라는 우리 나라외에 몇개 나라에 불과하다. 더우기 이런 나라들에서도 위성개발에서 100%국산화라는 말은 사실상 신화적인 용어로 통용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20여개의 위성 발사장과 10여개의 위성관계종합지휘소중에도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건설한것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뛰어넘으

며 말그대로 대비약하였다. 인공지구위성의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100%국산화한것은 첨단과학기술개척과 우주과학기술에서 이룩된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주정복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우주개발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첫 실용위성인 과학기술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성공이라는 쾌거를 안아왔고 이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올려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공화국이 우주강국의 지위에 오른 이런 경이적인 성과와 발전은 우주개발을 국가의 권위와 위대한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떨치는 중대사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우주과학자, 기술자들

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사람은 밤을 먹으면서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하시며 우주개발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때로는 밤을 새우시며 함께 실패원인도 찾으시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주신 원수님 이시다. 때로는 위

성발사장을 찾으시고 발사준비를 구체적으로 지도하시고 때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계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며 실용위성개발과 발사, 관측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그이이다. 우주개발자들이 《우리의 운반로켓과 위성은 단순한 동체와 연료의 결합체이기 전에 두터운 믿음과 정이 응축된 녀이 있고 피가 흐르며 심장이 뛰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말하곤 한다.》고 한것은 우연치 않다. 그들의 마음속에 령도자의 모습이 존엄높은 우주강국의 위대한 영상으로 짝 차있는것이다. 나라의 존엄을 빛내이고 국력을 다지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가, 애국자라고 하시며 하늘같은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피심속에 위성과학자주력자, 미래과학자거리, 미래상점과 같은 현대적인 주택들과 봉사기자들이 마련되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국가적인 혜택이 차례지고있다.

새로 건설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과학으로 새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이의 뜻과 의도대로, 그이께서 그려보시는 사회주의강국의 길로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는 힘차게 달리고있다. 주체과학기술의 방향과 목표를 확히 밝혀주시고 비범한 예지와 완강한 실천력으로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는 과학기술발전의 위대한 원동력, 강성번영의 지름길이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의 밝은 미래를 그리시며

## 소백수골에서 나누신 이야기

항일대전의 총성이 높이 울리던 1943년 3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와 함께 소백수골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조선혁명의 장래와 관련한 뜻깊은 담화였다.

떠나간 전우들을 추억하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던 주석님께서서는 우리는 혁명의 길에서 너무도 많은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잃었다고, 우리들앞에는 그들의 뒀까지 합쳐 강도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민들이 바라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

이 나서고있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 성스러운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다 한다면 손자대에 가서라도 기어이 이 과업을 수행하고야말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김정숙녀사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아드님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었다.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완성의 합법칙성과 그 길에 있을수 있는 온갖 난관신고도 다 통찰하시고 하신 뜻깊은 교시였다.

## 대를 이어 끝까지

1996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그날 나는 끝없이 변형할 사회주의조국과 그 품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할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있다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투쟁이라는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지원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었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나가야 한다.

##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부르며

사나운 눈바람, 찬서리에 도 자기의 푸르른 본색을 변치 않고 끝끝내 봄을 맞는 소나무의 곳곳 자라는 강직한 우리 민족의 기개를 상징한다. 하기에 일찌기 반일독립운동의 길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

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해주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 《누구나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흔히 고아라고 하면 불행과 고통, 가난과 설움의 대명사처럼 여기는것이 보통이다. 어쩌다 부모없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 동정의 눈길을 보내거나 손에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쥐여주고 이런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속에 섞여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함께 하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은 새로 일떠선 평양초등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원아들의 궁전, 행복의 보금자리로 불리우는 평양초등학교는 풍치수려한 평양시 교외에 자리잡고 있었다.

책 보기에 도회한게 꾸러진 초등학교의 정문에 들어서서 순간 입가에서는 저 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동화적인 느낌을 주는 울라리너머로 아담하면서도 특색있게 꾸러진 교사와 기숙사, 파란 인공잔디를 깔 운동장이 눈앞에 펼쳐졌던것이다.

교사안은 또 얼마나 훌륭하고 깨끗한지 선뜻 발을 들여놓기 주저될 정도였다. 컴퓨터와 액정TV, 전자풍금 등을 갖춘 교실들에서는 아이들의 끝없는 소리,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오고 있었는데 교원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교실들이 다기능화, 정보화되어있다는것이였다.

수업이 한창인 2학년 1반 교실안을 가만히 들여다보

느라니 선생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겠다고 저마끔 손을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우리와 만난 오함교원은 원아들속에는 뛰어난 재간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고, 앞으로 우리 원아들속에서 영웅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며 이름난 체육인도 나올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느라였다.

이밖에도 초등학교에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과 소년단실, 자연실, 음악 및 춤보급실, 전자도서열람실이 훌륭히 꾸려져있어 원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과 집단을 위하는 마음을 키우며 일반기초지식과 체육예능교육을 충분히 받을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복도는 또 복도대로 동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 등이 붙여있어 학원안의 모든 공간이 그대로 지식의

주요 상식을 주는 교육홀이나 같았다. 이렇듯 훌륭한 교정에서 공부하느라하면 원아들이 지적체를 갖춘 훌륭한 학생들로 자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평양시안의 많은 기업, 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학원건설에 아낌없는 맘을 바쳤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원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밤을 밝히며 일해서 오늘과 같이 훌륭한 학원이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윤정희 학원일군의 말이였다.

그의 말을 듣느라니 눈앞에 지난 2월초 새로 일떠선 평양초등학교를 돌아보시고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서 즐거워진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왔다. 만사망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 그날의 화폭은 진정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있는 친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이렇듯 하늘의 태양보다 더 따뜻하고 바다보다 더 넓은 위대한 품이 원아들의 요람을 지켜주고 그들의 먼 앞날까지 책임져주고있기에 원아들이 고아의 설움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원아들을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으랴.

평양초등학교의 창가로는 복받은 원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맑고 푸른 봄하늘가로 끝없이 울려가고있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오늘의 시점에서 6.15시대를 돌아다보면 감동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 북남관계는 팽팽 얼어붙은 겨울에 비유할 수 있다.

6.15시대에는 이와는 정 반대였다.

북남이 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니 분열의 긴긴 세월 겨울의 마음속에 쌓여왔던 불신과 대결의 감정도 봄날의 눈석이마냥 녹아버리고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가 모두의 가슴속에 활짝 피었다. 만나면 서로 열싸안았고 맞잡은 손으로는 피보다 진한 민족의 열과 정이 흘렀다. 북도 내 겨레, 남도 내 겨레, 이것이 어찌 몇몇 사람만의 감정이었으랴. 모두의 몽클한 심정이었다.

그때는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환희와 랑만이 차고넘친 감격의 나날들이기도 했다.

누구나가 통일을 말했고 한 목소리로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를 웨쳤다. 통일을 앞당겨오는 의로운 일에서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었고 사상과 정견, 계층의 차이도 없었다.

6.15가 열어준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자주통일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쳤다. 북과 남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도 성대히 진행되었다.

## 다시 찾아야 할 6.15 (2) 통일환희가 차넘치던 소중한 그 시절

북남사이에 진행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업,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 그속에서 울려나온 웨침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이었고 그에 관통된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였다.

6.15시대에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된 우리 민족끼리, 이것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자신의 손으로 기어이 이룩하겠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함축된 시대어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자,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할것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통일의 주역으로 나섰다.

금강산 1만 2천봉이 들쭉하게 북남노동자들은 통일의 마지못한 높이 울렀고 북에서, 남에서 모여온 농민들은 통일된 새땅에서 풍년농사를 마음껏 지을 꿈을 즐거운 농악무에 담아 펼쳤다.

정치인들은 만나면 민족공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통일지향적인 대화를 했고 경제인들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에 머리를 맞댔다. 언론론은 언론대로 화해와 통일의 목소리를 높였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해도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이 하나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를 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여러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함으로써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통일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6.15시대에 펼쳐진 래왕과 접촉, 통일행사들을 통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향해 가는 랑만과 희열을 느꼈다.

북녘의 통일사절로 부산과 대구에 간 《꽃웁원단》의 《우리는—》의 웨침에 남녘의 겨레들이 《하나다!》로 화답하고 《조국—》하는 선창에 《통일!》로 대답할 때 온 겨레의 가슴속에 세차게 고통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세기적숙망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이었고 우리 민족끼리로 늘려 자주통일의 거세찬 숨결이었다.

북녘의 동포형제들을 만난 남녘의 각계층은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진행형, 완료형이라며 6.15시대의 벽찬 감격을

토로했었다. 진정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6.15는 민족의 화해이고 단합이었고 나라의 평화이고 통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론의 자체가 범죄시되고있다. 《리명박근혜정권》은 지난 근 10년간 북남관계를 6.15이전보다 더한 불신과 적대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범민련 남측본부 로수회부의장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관문점을 통해 귀환할 때 온 겨레와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오랜 세월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이 땅에서 누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고 누가 분열을 바라는가를, 그리고 누가 진짜 주인공인가를, 남조선의 반쪽외보수세력이 북녘겨레의 따뜻한 배려와 눈물겨운 전송을 받으며 관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어서는 로수회부의장에 이리떼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듯이 감포해가는 야수적폭력을 감행해나선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 교류와 협력을 주장하는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단체, 인

사들이 《친북》, 《리적》, 《간첩》, 《중복》으로 몰려가혹하게 탄압당해왔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떠드는 《통일준비》니, 《통일외교》니 하는것들은 저들주도의 《흡수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 어리석은 기도의 산물로서 그것이 추구하는것은 체제대결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이미 집권 첫날부터 북남수뇌분들이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고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해나선 북남공동선언을 《용공리적문제》, 《부도난 약속어음》으로 매도하며 통일과는 아예 담을 쌓았다. 그리고는 지난 6.15시대에 북남삼천리에 차넘치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북에 끌려다니는 결과》로 중상모독하고 《과거 남북관계에서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되풀이여서는 안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북남사이에 대화는 통일에 가는 필수과정인것이다. 대화를 해야 서로를 더 잘 알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난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북에 끌려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느니, 《지

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느니,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고 쉼처대며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를 거부해나섰다.

6.15시대에는 북과 남 사이에 21차의 상급회담과 13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하여 무려 140여차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었지만 지난 근 10년간 북남사이에 대화다운 대화가 한번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됐던 대화도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이 팔수에 찬 남조선 반통일보수집권세력의 대결책동으로 파탄을 면치 못했다.

북남사이에 그처럼 활발히 진행되던 래왕과 협력사업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로만 되었다. 특히 박근혜역적패당은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이고 6.15의 유동자인 개성공업지구를 전면폐쇄함으로써 북남관계의 마지막숨통마저 끊어 놓았다.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권》의 집권 근 10년간 이렇듯 6.15의 성과들은 모두 말살되고 북남관계는 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현실은 6.15는 지키면 통일이요, 그를 버리면 대결과 분열의 지속, 전쟁위험의 증대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대장정은 반드시 승리한다》

최근 남조선의 박근혜 《사람일보》 회장이 《우리 모두 통일대통령》이라는 책에서 《6.15, 10.4 거국 《정권》을 실현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력사는 6.15, 10.4 거국 《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 정당, 사회단체들이 6.15, 10.4선언의 완수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거국

《정권》을 총목표와 총로선으로 전면내걸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 력사적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자는 《국민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봉사자》라며 《우리 모두 6.15시대의 통일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박근혜탄핵과 관련하여 《천만 초불항쟁은 6.15, 10.4선언을 짓밟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박근혜를 탄핵

했다.》며 《박근혜심판은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청산의 새 출발》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 민족은 한세기 넘게 제국주의침략에 의해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겪어왔다.》고 하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청산의 근본은 이런 참혹한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는 6.15, 10.4선언의 완수에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끝으로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19세기말 전봉준장군을 비롯한 동학혁명선렬들의 피땀의 원한을 잊지 말고 우리모두 6.15시대에 따라 통일대통령의 주권을 실현하자.》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대장정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동족대결은 수치스러운 파멸의 길

만고역적 박근혜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지금 사람들은 년이 쇠고 랑을 찬채 감옥에서 말년을 홀로 고독하게 보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조소를 보내고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된데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의사를 거역하고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한 범피적책동에도 기인된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북제제붕괴》와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동족대결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어린 제안들을 내놓고 남조선당국에 선의의 손길도 내밀어주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북에 끌려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독기를 뽐내대면서 북남당국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전면 차단해버렸으며 북남관계를 파란시킴을 위

해 더욱 기승을 부렸다. 박근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며 6.15의 귀중한 유동자인 개성공업지구를 전면폐쇄함으로써 북남관계의 마지막숨통마저 완전히 끊어놓았다.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이 팔수에 짙어붙은 박근혜는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살과 제재를 통하여 공화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체제대결흥심을 로 팔적으로 드러냈다.

해마다 미국의 반대한 침략무력과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대규모적으로 벌여놓았으며 무엄하게도 《공포정치》니 뭐니 하며 감히 우리의 최고준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평양진격작전》과 《참수작전》을 운운하는 천벌을 면치 못할 악행을 저질러대는것도 꺼리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입만 벌리면 《북핵위협》을 떠들고 여기저기를 싸다니

며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악담들을 꺼리낌없이 내뱉었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공화국을 내무로부터 와해시켜보려는 망상일에 인간쓰레기들을 굶어모아 반공화국베라살포와 《인권》소동에 광분하여왔다.

지어 공화국의 주민들을 백주에 유인암치하여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에 끌고가는 천하폐륜망동도 서슴지 않았으며 나중에 는 제년이 직접 나서서 북주민들을 보고 남쪽으로 오라고 《탈북》선동까지 하였다.

그로하여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민족의 머리우에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게 되었다.

실로 박근혜가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에 미쳐 날뛰는데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최근 남조선의 한 단체는 긴급론편을 발표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덧쌓인 적폐는 특히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단죄하였다.

력대 대결광들도 무색케 할 극도의 동족대결광기를 부리며 북남관계를 모조리 마사놓고 이 땅에 전쟁위험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박근혜의 치명리는 최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고 용서받을수도 없는것이다. 그 몸서리치는 최악의 대가를 이면에 박근혜는 톡톡히 치르었다.

역도년의 비참한 말로야말로 동족대결은 파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 조선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중단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회진보련대, 로동자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

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이번 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한층 높여 평화를 위협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미국과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에서 《싸드》배치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것은 미국, 일본, 남조선동맹의 일체화가 보다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싸드》배치를 전면중지하라 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수십년간 되풀이되어온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개시하여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뒤집고 항구적인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 제갈길을 간 세기적악녀의 비극적종말을 평함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21세기의 악녀 박근혜가 마침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가장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박근혜없는 봄을 맞이하자며 130여 일이나 즐긴 투쟁을 벌려온 남조선인민들이 터치는 만세소리가 이 시각 천지를 진감하고있는 가운데 세계의 주요언론들도 역도년의 극적인 파멸을 대서특필하며 그 가련한 처지에 대한 야유와 조롱을 아끼지 않고있다.

동서고금의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무능과 악정으로 국민의 거센 항거에 부딪쳐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통치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박근혜역도처럼 극악무도한 만고죄악을 저질러 온 민족이 분노에 치를 떨게 하고 드러난 행실이 너무도 추하고 악스러워 온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받으며 축출당한 집권자는 일찌기 없었다.

4년전 《첫 녀성대통령》이니 뭐니 하고 온갖 요사를 떨며 청와대에 입성하던 그때에 과연 누가 시궁창속의 비루먹은 암개같은 가강한 물골로 쫓겨나 력사의 심판대에 서게 된 박근혜의 오를을 상상할수 있었겠는가.

예로부터 죄는 지은대로 가고 공은 세운대로 간다고 하였다.

박근혜는 응당 제갈길을 갔으며 그 종말은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다.

세상에 날 때부터 잘못 태어나 한생 더럽게 살다가 만사람의 저주와 비난을 못매처럼 맞으며 숨넘어가는 회세의 악녀 박근혜의 더러운 행적을 파헤쳐보던 후세에 새겨주는 처절한 피의 교훈이 있다.

## 1

박근혜의 비극적종말은 한피줄을 나는 겨례의 동위에 찬을 박아보겠다고 미쳐날뛰다가는 철하역적의 오명을 남기게 되고 제 목숨부터 끊어지는 결과판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역도가 집권 4년간 세운 죄악의 신기록중에서 누구나 첫번째로 꼽는것이 다름아닌 동족안에 저지른 대결죄악이다.

력대 괴뢰통치배들가운데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자들이 적지 않지만 박근혜처럼 북남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전면파괴를 공공연한 《대북정책》으로 삼고 《북붕괴》와 《흡수통일》을 오매불망 고대하며 그 불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친듯이 발광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북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일을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과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듭 내놓고 남조선의 그 어떤 《정권》과도 함께 손잡고나가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인것은 내외가 한결같이 공인하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집권 첫날부터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피이한 고안품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을 때에도 그 음흉한 속내를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너그러운 도량과 선의로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함께 써나갈데 대한 진정어린 제안도 하였고 그 실현을 위한 주동적인 조치들도 적극 취하였다.

하지만 속에 대결양심이 짙어찬 박근혜는 동족의 진정과 성의있는 노력에 어떻게 대답해나섰는가.

모처럼 당국대화의 문이 열리면 물풍스럽게 담아버리고 동족이 화해의 다리를 놓으면 한사코 끊어놓았으며 관계개선의 손길을 내밀어주면 미련스럽게 외면해왔다.

북남사이에 여러차례 대화의 마당이 마련되고 지어 고위급진접촉과 같은 중요한 정치협상도 진행되었지만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사회적 류례없는 최악의 파국에 처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암독사처럼 도사리고앉아 동족압살의 랭기만 풍기며 온갖 못된짓을

다해온 박근혜때문이다.

역도년은 우리의 면전에서 최고준엄을 엄중히 모독하는 특대형도발을 감행하는것도 모자라 군부호전광들을 부추겨 감히 《집무실타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는 극악무도한짓까지 감행하겠다고 날뛰었다. 군부장관들과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심리모략방술과 베라살포망동에 열을 올리면서 적대적분위기를 더욱 로골적으로 고취한것도 박근혜이다.

외세와 야합한 사상 최대의 북침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놓다 못해 2015년 8월과 같이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우리측 지역에 수십발의 포탄까지 쏘아대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태에 몰아간것도 박근혜역도이며 6.15의 산아인 개성공업지구를 끝끝내 전면폐쇄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렬한 천하의 대결광녀도 다름아닌 역도년이다. 지어 력대 괴뢰집권자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북인권법》을 제정하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백주에 우리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하여 끌고가는 천주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박근혜년은 《2년안에 북이 망한다.》는 열간등이무당인 최순실의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결핍하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체도를 악랄하게 헐뜯어대면서 《북붕괴》망상을 현실로 만들어보겠다고 짓먹던 힘까지 다 짜내었다. 동과리때 들끓는 제 집안일은 제쳐두고 한달이 멀다하게 대륙과 대양을 날아다니며 국제창녀노릇을 자청한것도 오로지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살》의 폭을 최대한 넓혀보겠다는 미련과 흥심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동족의 결투에 쫓겨러던 그 같은 그대로 제 엄통을 찌르고 명줄을 끊어놓는 비수가 되었다.

오늘의 사태는 제 겨례, 제 민족을 그토록 악랄하게 모함하며 온갖 대결망동을 다 저지른 박근혜에게 내려진 천벌이다.

동족이 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내밀어주었을 때 단 한번이라도 귀기울이고 마음을 열었더라면 사태는 달리 되었을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불운이 드리운 처지를 면하려면 자중, 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우리의 충고를 심중히 새겨들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수치스러운 파멸만은 면할수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민족의 넋과 량심이란 티끌만큼도 없고 동족에 대한 극단적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온갖 대결적악행만을 일삼아온 박근혜역도는 만고의 역적으로 락인되어 온 민족의 준엄한 철추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가 누구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례의 절절한 념원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에 광분한다면 청와대악녀와 같은 처참한 종말밖에 차레질것이 없을것이다.

## 2

박근혜의 비극적종말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섬겨바치며 사대매국의 악행만을 저지른다면 만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히게 된다는것을 톡톡히 새겨주고있다.

매국과 반역은 원래 박근혜일가가 대를 물려오는 《가풍》이고 《유산》이다.

더우기 타고난 기형적성격과 비정상적행태로 나이 60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가보고 청와대에서 독수공방하던 박근혜는 류달리 외세라면 사족을 못 쓰고 바람난 화냥년 기동서방 섬기듯 떠받들었다.

이른바 균형외교를 표방해온 박근혜 《정권》의 외교정책을 뒤집어보면 사실상 여기저기에 몸을 파는 늑거리 《창녀외교》이다. 외세의 식민

지주로서 자주적대도 없고 그 어떤 원칙도 없으며 여기저기에 빌붙어 눈치를 보아야만 살아갈수 있는 처지에서 고안해낸 박근혜식 《창녀외교》야말로 사대와 매국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는 말년에 미국의 눈밖에 나더러운 죽음을 당한 제 예비의 전철을 밟으려가서인지 누구보다 미국상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바지가맹이를 부여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너절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바마의 환심을 사보겠다고 결핍하면 미국에 날아가고 청와대안방까지 서슴없이 내어주며 세상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별의별 추태를 다 부려 만민의 조소를 받아온 박근혜이다. 《세월》호대참사로 온 남조선땅에 비에의 피눈물이 차고넘칠 때 그 폭성에는 귀구멍을 틀어막고 늪어빠진 몸뚱이를 비단필로 휘감은채 오바마를 청와대에 불러들여 회회락락하며 추저분하게 놀아대어 민심의 분노를 자아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느때는 그토록 랭기만 풍기던 박근혜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이 한 주민으로부터 정의의 칼세례를 받은 사건이 터지자 해외행각도중 황급히 돌아와서는 려장도 풀 사이없이 급급히 병원부터 찾아가 얼굴을 맞부비며 비굴하게 아양을 떨어대어 온 세상을 경악케 하였다.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기로 되어있던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한성없이 뒤로 미루어놓고 그 대가로 미국산 전장무기들을 비싼 값을 들여 사들인것도 모자라 내외의 강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배치강요를 서슴없이 받아들였으며 아버지 규환의 랭해사태속에서도 《싸드》배치만은 흔들림없이 밀고나가 특등주구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회대의 정치창녀 박근혜의 친일매국행적도 남달랐다. 백년속적 일본의 과거성노예범죄를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백지화해주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재침야육실현의 길을 활짝 열어준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송두리채 팔아먹어 온 박근혜년의 더러운 정체를 낱낱이 고발해준다.

이뿐이 아니다. 제년의 《창녀외교》의 폭을 한치라도 넓히기 위해 박근혜는 낮간지러운줄도 모르고 《공조》니, 《동반자》니 하는 귀맛좋은 소리들을 오늘에 이쪽에, 래일은 저쪽에 주어섬겨대며 세상이 배달하게 돌아쳤다. 집권 4년간 무려 40여차례나 해외행각에 나서 상대가 초면이건 구면이건, 남자건 녀자건 가림없이 붙잡고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구걸질하고 겨례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마구 랑도질하였으니 력사에 악명높은 그 어느 매국역도 박근혜와는 감히 견주지도 하지 못할것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외세를 위해 그토록 혼신을 다 바쳤건만 차레진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는것이다.

박근혜가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겨왔지만 랭행위기에 처해 목숨이 경각에 놓인 역도년을 과연 어떻게 대해주었는가.

《박근혜의 퇴진을 늦추어서 얻을것이 없다.》, 《지체없이 다음기 (대통령) 을 뽑는것이 좋다.》고 로골적으로 떠들며 역도년을 남면저 용도폐기해버린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어 《박근혜, 최순실추방사건》의 진모를 역도년이 집권기간 저지른 죄악과 함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인권보고서》라는것까지 공식 발표함으로써 박근혜의 종말을 재촉하였는가 하면 랭행결정이 이루어지자 즉시 언론들을 내세워 《독재자의 딸이 추문으로 물러났다.》, 《기막힌 몰락의 주인공으로 되었다.》고 후평함으로써 주구의 마지막미련조차 가차없이 잘라버리었다.

아무리 어리석고 소견머리없는 박근혜일지라도 미국이 매긴 자신의 존재가치와 몸값이 어떤것이였는가

를 지금쯤 몸서리치게 깨닫고있을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치며 통곡해야 때는 늦었으며 사대매국의 대가는 퍼와 목숨으로 치르게 되어있다.

바로 이것이 민족의 진짜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으면서 천주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의 비참한 말로가 력사에 남기는 교훈이다.

## 3

박근혜의 비극적종말은 백성을 깨, 돼지처럼 여기며 그들의 피와 땀으로 부귀영화의 탑을 쌓으려는자들은 격노한 민심의 바다에 수장될수 밖에 없다는 준엄한 철리를 웅변해 주고있다.

예로부터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면 천하를 얻을수 있지만 그들을 한낱 권력유지의 대상으로, 치부의 수단으로 삼을 때 민심의 바다는 거대한 해일을 몰아오는 법이다.

박근혜는 그 어떤 정치적반대세력이 아니라 제년이 평소에게, 돼지취급을 해온 99%의 근로민중에 의하여 상상도 할수 없었던 정치적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사실 4년전 박근혜가 청와대에 또 아리를 틀었을 때 남조선인민들은 《국민행복시대》니,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니 하는 역도년의 장미빛 공약에 한가닥의 미련을 가지었다.

하지만 박근혜역도는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기 바쁘게 민심을 남기 위해 필요했던 기만적약속을 백지화하고 제년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민생은 날로 도란에 빠져들었으니 박근혜의 모든 관심은 《대통령》권한을 마음껏 휘둘러 제년의 사치와 방탕, 부귀영화를 위한 돈낭가리를 쌓는데만 쏠리었다.

결핍하면 장, 차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연설이요 하였지만 그것은 따져놓고보면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을 더욱 악화스럽게 짜내어 제년의 무한대한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국정사기극》이었다.

역도년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고위직들에 제년의 지령을 무조건 받아들여 고 집행할수 있는 줄개들을 들여왔고 여기에 방해가 없다고 보이는 인물들을 가져없이 목을 때버리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불법무법의 재단들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어 《정부》예산을 떼먹고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우려내는 창구로 써먹으며 온갖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긁어모았다.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을 막후에서 밀어주고 최순실년에게 수천만US\$의 자금을 갖다바치게 하였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있던 SK그룹 회장 최태원을 특별사면시켜주고 1 000만US\$의 뇌물을 받아먹은것과 같은 죄행들은 산더미같은 부정부패행위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역도의 돈주머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남조선경제는 각일각 파국에 처하였으며 인민들의 삶은 최악의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역도년의 집권 4년간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전체 주민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세대가 세방이나 쪽방, 비닐집, 움막 등 집 아닌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이 무려 570여만명으로 늘어난 사실들은 박근혜의 반인민적통치의 일단을 보여주는 산증거이다.

침몰되어가는 《세월》호에서 수백의 어린 생명들이 애라게 구원을 요청하던 그 순간에도 청와대안방에 틀어박혀 다 늪어빠진 장관의 주름을 편다고 7시간을 허송세월하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진상규명

을 요구하는 유가족들마저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던 천하의 랭혈한, 생존권을 요구하여 평화적시위에 나선 인민들을 경찰장패들을 내몰아 마구 탄압하다 못해 물대포를 쏘아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천인공노할 과쵸적폭거도 서슴지 않는 회세의 악귀를 과연 누가 용납할수 있겠는가.

지난해 10월에 터진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달아오른 민심의 바다에 드디어 불을 달았다. 쌓일대로 쌓였던 분노가 마침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청와대를 향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되어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들이, 로동재해현장에서 눈도 감지 못하고 쓰러진 수천수만의 로동자들이, 빼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도 살아갈수 없게 한 자기 몸을 통채로 불사르며 항거한 농민들이 그 노호하는 초불광장에 함께 섰다.

누가 추동하지도, 시키지도 않았건만 스스로 초불을 들고 투쟁의 광장에 나선 인민들이었다.

박근혜역도가 감히 깨, 돼지로 락인하고 마음대로 통략해온 인민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존엄과 자주적권리를 찾기 위한 길에 다름아닌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역적인 박근혜 《정권》부터 끝장내는데 있다는것을 퍼눈물나는 생활을 통하여 절감하였으며 마침내 정의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었던것이다.

야당들과 정치세력들이 정치적리해관계를 따지며 타협과 우유부단, 말바꾸기로 갈팡질팡할 때 투쟁의 인민광장에서는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감옥으로!》, 《모살졌다, 갈아엎자!》, 《썩은 권력 몰아내고 낫은 체제 쓰러뜨리자!》, 《박근혜없는 새봄을 맞이하자!》는 구호들이 힘차게 터져나왔고 5만으로 시작된 초불대오는 100만, 500만, 1 500여만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보수패당의 발악을 여지없이 짓몽개버리었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초불시위가 시작된 때로부터 130여일, 그것도 대소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엄혹한 겨울의 한계절이 흘렀다.

박근혜와 그 줄개들은 수십년동안 쌓아올린 권력의 뒤에 버리어 어떻게 하나 살길을 찾아보려고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서울한복판에서 대형성조기를 날리며 미국에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가 하면 측근 줄개들을 내몰아 민심을 기만하는 오그랑수를 쓰고 부정추채하였던 돈으로 보수꼴통분자들을 매수하여 초불민심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매일같이 벌리는 등 치사스러운 행태를 폈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마지막순간까지 동요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투쟁의 초불을 내리우지 않았으며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력사적승리를 성취하였다.

민심이자 곧 천심이며 그를 거역하는 자 죽음의 길밖에 달리 갈 곳이 없다고 하였다.

그토록 인민을 천시하고 룹멸하며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마음대로 짓밟고 그 피와 땀을 아낌없이 짜내어 평생토록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했던 박근혜, 그 천하악귀가 오늘은 인민들의 손에 사로잡혀 잔치상에 오른 룹돼지신세가 되고말았으니 실로 가련라 하지 않을수 없다.

## 4

박근혜의 비극적운명은 추악한 권력야망실현을 위해 그 어떤짓도 서슴지 않는 회세의 반역아들이 가당을 종착점은 예비이든 딸이든 하나같이 더러운 개죽음뿐이라는 운명의 철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괴망은 지배에는 치명적인 폐해가 뒤따르기마련이며 이런자들에게 력사는 흉한 꿈처럼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5면으로 계속)

# 초불이 태워버린 악정의 4년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불의를 용납치 않고 박근혜 퇴진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남조선인민들의 무한대한 힘에 의한 것이다.

연 1600만명이 손에 든 초불은 청와대를 덮쳤고 민중의 힘은 악귀 같은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쫓고야말았다.

인민은 왜 박근혜를 비참한 파멸에 몰아넣었는가.

초불은 단지 세계정치사에도 없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에 대한 분노로만 타오르지 않았다. 그 분노와 함께 박근혜 집권 4년간에 쌓이고 쌓여온 《정권》에 대한 불만과 환멸이 함께 달아올라 거대한 초불의 대하를 만들었다.

남조선의 초불광장에서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해온 것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사무원, 고등학교 학생, 가정주부, 대학교수, 예술인, 종교인, 실로 모든 계층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들은 《박근혜 죽자 퇴진!》 구호와 함께 자기들의 생존권, 인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구호들을 내걸었다. 해고를 각오하고 초불을 추켜든 노동자, 학생들은 더욱 죽어가는 노동법개정안을 반대하고 탐욕의 상징인 재벌의 해체를 부르짖었으며 트랙터까지 몰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들은 쌀값인상 등 생존수호를 절규하였다.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같은 특권층의 자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썩은 교육현실을 개혁하자며 초불바다에 뛰어들고 빈민들과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생계보장,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여 분노의 함성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합치었다.

녀성들은 너자라고 천시하고 차별하는 온갖 불공정한 조치들에 반기를 들었고 가슴에 피멍이 든 《세월》호유가족들은 수백명의 자기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진상을 밝히고 살인자를 처벌하라며 거리의 광장에서 울분을 다시 토하였다. 투쟁의 광장에 앉아 리순진장군 손에 든 장검으로 박근혜를 내러치는 그림을 그린 화가도 있었다.

(4면에서 계속)

이야말로 박정희, 박근혜부녀와 같은 회색의 권력미치광이, 파썸독재자, 매국역적들에게 신통히도 들어맞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파멸은 남조선을 오래동안 지배하여온 박정희체제의 파멸이며 대를 이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저들의 《왕국》을 만들려던 천하의 매국역적가문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고 영원한 매장으로 된다.

피졸만 이은 것이 아니라 무서운 권력중독증, 칠면피하고 맹렬적인 통치기질, 피이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습성 등 모든것을 그대로 넘겨받아 《제2의 박정희》라는 평가를 받아온 박근혜가 자기 예비처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우연적현상이 아닌 필연적귀결이다.

박정희, 박근혜부녀에게 차려진 신통히도 똑같은 비극적종말은 그 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도사리고있던 남달리 무서운 권력야망에서 출발한다.

일찍부터 일신의 부귀영달을 위한 길을 권력에서 찾아온 박정희가 일본과 미국으로 상전을 바꾸어가며 출세의 길을 닦아오다가 남조선의 혼란된 정세를 리용하여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하루아침에 권력을 탈취하였으며 《유신》독재의 칼날로 장기집권의 포석을 깔았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박근혜년의 더러운 인생사도 예비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집권 4년여간의 모든 악정, 부패, 살인, 범죄 만행들에 대한 민심의 거대한 분노가 청와대를 집어삼켰다고 할 수 있다. 특검과 언론을 통해 실꾸레미처럼 계속 드러난 박근혜의 만고죄악상은 파고파도 끝이 없고 더욱 악취만 풍겨나오는 독재 《정권》의 추악한 면모를 날날이 고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남녘로소 누구나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개탄과 저주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겠는가.

력사에는 독재와 부패, 무능으로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된 집권자들의 실례가 수도룩하다. 하지만 박근혜역도처럼 만인이 분노할 하늘에 닿을 죄악을 쌓은 역적, 통치자는 일찌기 없었다.

박근혜 《정권》 4년은 모두의 삶을 짓밟고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간 악정의 4년이었다.

박근혜의 정치사전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최순실, 정유라만이 있었고 부패의 공범자인 《새누리당》과 한줌밖에 안되는 재벌들밖에 없었다. 백성을 섬기겠다던 박근혜는 민중을 《개, 돼지》처럼 여기고 혹사하였다. 오직 자기와 최순실의 권력야욕, 부화방탕과 치부를 위해 노동자들의 피땀을 마구 짜내고 농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았으며 반항하면 물대포를 쏘아 백남기와 같이 무참히 살륙한 박근혜살인 《정권》이다. 기만적인 《로인복지》공약은 부끄러운 로인자살을 세계 1위로 바꿔놓았고 박근혜를 같은 녀성이라고 믿어주었던 수많은 녀성들은 그 악녀때문에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개성공업지구를 한순간에 폐쇄하여 수천개의 기업과 그곳에 매달려 명줄을 이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막바지로 내몬것은 박근혜이고 《청년들은 중동으로 나가라.》고 매몰차게 쫓아내면서 정유라만 싸고돈 최악으로 하여 청년들은 물론 고등학교학생들에게서까지 앞날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간 악귀도 박근혜이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돈과 권력이 없는 수백수천만 민중에게 던진 박근혜 《정권》의 죽으라는 소리였다. 그 살인구호

가 통용되는 박근혜세상에서 바다에 빠진 수백명의 아이들이 구원의 손길 한번 못 받아보고 원한서린 눈을 감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당하였다.

박근혜는 이렇게 모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남조선을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으로 더욱 화하게 했다.

초불이 태워버린 박근혜의 악정 4년은 민주와 인권을 송두리채 짓밟아놓은 파썸의 4년이였다.

박근혜는 남조선을 말그대로 살인감옥으로 만들었다. 제 예비가 18년간의 《유신》독재로 온 남녘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듯이 그 독재의 피를 물려받은 청와대악녀도 남조선을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민주주의 황량한 무덤으로 만들었다. 집권자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것이 《불법》으로 되고 《중복》, 《나쁜 사람》이 되어 줄줄이 구속되고 해산당하고 죽어가야 했다. 치마두른 박근혜의 독재와 전횡은 고대로마의 네로도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권력을 손에 쥔 4년어간에 굴종의 새 력사를 쓰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닦치는대로 팔아먹었다. 매국노가 다른 것이 아니다. 민족의 존엄을 팔고 리익을 팔면 그것이 매국노이고 역적이다.

미국에 빼앗긴 군사주권도 찾지 않겠다며 《무한정 연기》한 박근혜는 온 남녘이 피나게 철창을 웨치는 《짜드》배치도 미국을 위해 강행하고 일본의 처벌리는 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켜주는 《합의문》이란것도 만들어냈으며 《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여 군국주의일본에 조선재침의 문까지 활짝 열어주는 쓸개 빠진 매국짓도 하였다. 박근혜가 기록 쓰고 강행한 력사교과서 《국정화》도 사실상 《유신》독재미화의 제 입맛에 맞게 다시 쓰게 한 력사쿠데라였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니 미국, 일본이 제일 바빠하는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4년은 북남관계에서도 빛이 없는 최대의 암흑기였다. 이 나날 박근혜 《정권》의 북

남관계 파괴망동은 리명박대결 《정권》때를 훨씬 능가하였다. 《대화》가 필요없고 북에는 오직 《제재와 압박》만을 가해야 한다는 대결광의 독기서린 망발속에 오늘 북남관계는 한줄기의 빛도 없는 절망과 파국의 지경에 처하였다. 박근혜패당이 입버릇처럼 외우던 《신뢰프로세스》는 극도의 《동족대결프로세스》였으며 《통일대박》은 《대박》은 커녕 분열을 더욱 지속케 한 《족박》이었다.

올해에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더욱 대규모적으로 벌이고 민족의 재앙거리인 미국의 각종 전략핵탄력수단들까지 남조선에 또다시 무제한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 박근혜보수패당의 반민족적망동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미국의 핵을 항시적으로 머리에 떠이고 핵전쟁이 실제로 위질수 있는 최대의 불안과 위협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고 있다.

최근에는 벌이 따른다고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하여 온 겨레의 증오와 배격을 받는 투등죄인인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저승길에 떨어진것은 천만번 당연한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난 마당에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너스레를 떠는 박근혜, 역시 그는 악녀중의 악녀였다. 민심의 한결같은 증오와 탄핵요구속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음에도 뻔뻔스럽게 그따위 수작을 늘어놓았으니 민의를 짓밟고 우롱하며 도전하는 그 악녀의 기질은 죽어야만 없어질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앞에 두고 두고 계산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를 기다리는것은 감옥이며 력사와 민심의 서슬푸른 단두대밖에 없다.

력사상 가장 비참한 독재자 박근혜의 운명은 민심은 불의와 매국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며 민의에 역행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역적배들이 가당을 갖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이고 수치스러운 자멸이라는것을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남조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였다. 초불민심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하였다. 온 남녘에 박수와 기쁨의 환호가 울린 그날은 날씨도 류달리 따스했다. 대지를 열구던 겨울의 추위는 어느덧 물러가고 봄의 따스함이 강산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느라니 남녘의 초불시위장면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주말마다 어둠의 남녘세상을 밝히려 거리거리들에 타오르던 초불, 연 1600만명이 손에 초불을 들고 웨쳤던 함성, 그것은 《박근혜없는 봄》에 대한 피라는 갈망이었다.

남녘민중은 2월의 초불집회장에서도 이렇게 웨쳤다. 《박근혜없는 3월, 그레야 봄이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인가, 초불을 높이는 즐거움 투쟁이 열매를 맺어서인가,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박근혜없는 봄》의 교향곡은 울려다녔다. 이 따스한 봄계절에 남녘인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진정한 사회의 새봄, 민주와 통일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 《박근혜없는 봄》의 시작



란것이며 박정희의 어제날을 떠난 박근혜의 오늘이란 있을수 없다. 박근혜 《정권》을 잉태시킨 《박정희신화》란것도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것들을 독재자의 공적으로 미화분식한 신기루에 불과한것이였다는 것이 박근혜의 반인민적악정과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통해 여실히 립증되고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류례없는 오욕의 행적을 남겨온 박정희일가의 100년사가 통채로 력사의 시궁창에 완전히 처박히고 이 극악무도한 매국역적가문은 세상사람들앞에서 가장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토록 외란스럽게 《기념》하겠던 예비의 생일제사상에 다름아닌 제 몸뚱아리를 통채로 제물로 올려놓게 되었으니 박근혜야말로 회대의 《효녀》인가, 세기의 악녀인가.

인류가 21세기의 악녀로 두고두고 저주할 박근혜는 이제 만인이 지켜보는 력사의 법정앞에 서게 되었다.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거역하며 정의와 진리를 반역하는자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천하악녀는 가장 비참한 마지막물결로 똑똑히 증명해주게 될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 《정권》의 종말로 치욕스러운 남조선정치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력사의 지평을 힘차게 열어가야 할것이다.

본 평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철들기 전부터 권력에 맞들이고 예비로부터 독재자의 자리를 넘겨받아 보겠다고 남모르는 야심을 키워온 예비가 비명횡사한 후 예비의 결에서 5년동안이나 《명부인》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 박정희의 《후계자》로 권력을 차지해보려 하였다한다. 이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마약중독자로 몰아갔으며 제년을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워주겠다는 최태민의 유혹에 넘어가 남몰래 《백년가약》까지 맺고 뻔뻔스럽게 예비앞에서 《청혼》 늑음까지 벌려놓게 하여 주위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니 이처럼 해괴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예비의 급사로 제년의 개꿈이 스펀로 돌아가자 역도 년은 정상적인 삶의 모든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청와대를 타고있을 그 순간만을 위하여 철치부심하였다.

박정희가 웨지기 바쁘게 안방금고부러 털어 예비가 부정축재해놓은 천문학적규모의 자금과 각종 금품이, 채권 등 전재산을 통채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동생들은 다 따돌리고 제년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자 《지도자》 격인 최태민에게 고스란히 넘기였으며 그를 밀천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기 위한 칼을 갈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의 한 정치가가 박근혜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권력집착중에 대해 《박근혜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구제 한 《나의 국민》이었다. 청와대는

《나의 집》이고 《대통령》은 가업이었다.》고 신랄하게 평가한것은 우연치 않다.

혹자는 박정희의 비명횡사후에 박근혜가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녀는 최태민인가가 쌓아준 울타리안에서 인생최대의 야망인 권력탈취의 로정도를 그리고 그 지반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닦아왔던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은것으로 박근혜의 권력야망이 끝난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예비의 후광과 오랜 세월에 걸친 집요한 발악으로 마침내 권력의 자리에서 오른 박근혜는 정치따위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박정희—박근혜왕국》을 꾸리는데 피눈이 되어 돌아갔다.

박근혜가 이미 력사의 심판을 받은 예비의 《명예회복》을 공공연히 떠들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빼들려 곳곳에 《박정희도서관》, 《박정희공원》이니 하는것들을 세우고 그 치적을 광고하는데 급급하다 못해 《유신》독재미화를 위해 력사교과서까지 뜯어고친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였다.

박정희군사파썸독재시기의 법적, 제도적장치들도 완벽하게 환원복구되었다. 《과파세력척결》의 광란속에 합법적인 정당과 진보적인론이 《내란음모집단》, 《중복》으로 몰려 하루아침에 강제로 해산, 폐간당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해나선 인사들이 감옥에 끌려가며

박해를 당하는 등 《유신》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횡포무도한 폭압란동이 매일같이 벌어졌다.

이 모든것은 단 5년의 집권으로는 결코 성차지 않아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시대를 열고 제년은 영원한 《보수의 너왕》으로 군림하여 식지 않는 권력야망을 성취해보려는 더러운 속심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박근혜가 재벌들을 강박하여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미르재단, K스포르재단을 내온것도 사실상 제년의 권력야심실현을 위한 예비돈창고를 마련하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권력미치광이의 결말은 눈먼 말을 타고 벼랑끝으로 돌진하는것처럼 위험천만한 법이다.

박정희가 《유신》독재로 장기집권을 꿈꾸다가 한밤중의 비명횡사로 모 든것이 끝났듯이 박근혜의 부질없는 권력망상도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눈앞에서 지켜본 예비의 처절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청와대의 영원한 주인이 되겠다고 천방지축 날뛰어온 박근혜는 다름아닌 예비가 태어난지 꼭 100년이 되는 올해에 자기의 파멸적종말로써 제 가문에 비운의 막을 내리었다.

알량한 딸년때문에 박정희의 허상과 실체가 더욱 똑똑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유신》독재자는 세월의 무덤속에서 끌려나와 두벌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모든 비극은 예비가 뿌린 독씨앗에서 자

# 세계개혁교회친교회 총서기가 미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세계개혁교회친교회 총서기 크리스 퍼그슨이 최근 미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편지는 세계개혁교회친교회가 지난 기간 지역과 세계의 평화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세계적협력을 강화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세계개혁교회친교회 대표단이 조선방문의 나날 과학기술, 건축, 경제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활력에 넘쳐 있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는데 대하여 편지는 지적하였다.

또한 체류기간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적인 립장의 명백한 표시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세계개혁교회친교회는 미국이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중지하며 모든 나라들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하여 동등하게 존중받는 진정한 대화에 나설것

과 미행정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긴급히 요구한다고 편지는 강조하였다.

편지는 조선에 가해지는 제재의 비인간성과 광담성을 폭로하고 미국정부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 제재에 대한 철회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종식, 신뢰구축을 위한 협상발기에 나설것을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회세의 악녀인 박근혜가 파면되어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것이 청산된것은 아니다.

박근혜와 그 《정권》이 뒤쫓아놓은것들이 아직 그득하다.

《싸드》 배치문제도 그중의 하나이다.

남조선인민들

비롯한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것은 박근혜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중의 하나이다.

박근혜가 《안보》를 구실로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함으로써 남조선과 남조선인민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극적불명의 핵탄의 파녀이 되게 되었다.

《싸드》 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배권확립을 위한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의 일환이다.

《북핵, 미싸일위협》은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싸드》로는 소형화, 정밀화, 다중화된 공화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막아낼수 없다는것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사코 《싸드》 배치를 강행하는것은 조선반도주변국들을 겨냥한것이다. 《싸드》의 레이다로는 반경 2 000km의 거

리안에 있는 모든 공중대상들을 시야에 넣을수 있다. 또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미싸일들의 발사도 탐지 및 요격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것으로 하여 주변나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싸

## 제양단지—《싸드》

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군사적으로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으르르고있다.

《싸드》가 운용되는 시점부터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미싸일이 남조선에 날아들게 된다는것은 결코 설마가 아니라 현실적불안이다.

남조선은 말그대로 대국들의 고래싸움에 끼운 새우신세가 되고 남조선인민들은 극적불명의 미싸일공격위험을 항시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것이다.

남조선에 가해지게 될 정치, 외교, 경제적압력도 더욱 커만가고있다.

《싸드》의 배치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것은 자명하다.

박근혜의 특대형부정부패로 하여 위기속에 허덕이는 남조선정세는 1997년의 국제통화기금사태보다 더한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결국 《싸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재앙에 재앙만을 가져

다주는 《판도라의 상자》이고 박근혜가 싸놓은 불행의 배설물이다.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한 하나의 죄악만으로도 박근혜를 열번도 더 감옥에 처넣을수 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단지 악녀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탄핵이다.

박근혜가 파멸의 무덤속에 처박힌 이상 악녀가 추진한 《싸드》 배치놓음도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불행과 고통의 화근덩어리로 되는 미국의 《싸드》 배치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오늘 남조선민심이다.

김장호

# 전쟁도 화선이 라들어간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려놓고 북침전쟁화약내를 질게 풍기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13일부터 개시된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고있다.

지금 내외호전세력들은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에 《북의 전쟁지휘부》와 주요군사기지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고 여기에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추구하는 《남조선형 3축타격체계》에서 기본인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계획》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연습에서 평양과 주요지휘부, 핵시설과 미싸일기지를 정밀타격하는 《외과수술식타격》 훈련이 진행되고있다. 이와 함께 특수전을 전문으로 하는 미군특수부대를 투입하고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력대훈련 등 합동군사연습을 본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한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끌어들이고 최신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배치를 다그치면서 남조선미국 《련합미싸일사령부》를 새로 내오겠다고 떠돌고있다. 용군 한계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대규모의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며 벌리는 호전세력들의 군사적망동은 그들의 북침도발책동의 도수가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은 박근혜탄핵으로 하여 극도의 혼란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뭐니 하는 구실밑에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보려 꾀하는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보다 더욱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문제의 엄중성은 여기에만 그치지않는다.

지난 시기 내외호전세력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소동때 미본토의 《싸드》포대와 《페트리오트》 요격미싸일부대를 조선반도에 긴급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싸드》발사대, 랭각장치, 레이다발침대를 비롯한 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등 《싸드》 배치를 4월까지 완료하려고 서두르는 한편 이번 《키 리졸브》 연습시에 《싸드》를 실전에 적용하는 훈련까지 벌려 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조선반도 주변국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강행하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이 조선반도정세를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긴장격화와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도발적소동이라고 하면서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쟁열에 들뜬 미국과 남조

선군부호전세력의 망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단순히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연습도 아니고 사실상 북침전쟁공격음모를 실현에 구현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놀음이다. 그에 따라 전쟁시한탄은 마지막 폭발계선으로 치닫고있다.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는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조선반도령역에만 국한되지 않을것이다. 동북아시아지역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것이다.

부나비는 제가 타죽을줄도 모르고 무모하게 불몽치에 덩벼든다. 전쟁화약고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고 땀박질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그대로 제 타죽을줄도 모르고 헤덤비는 부나비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국이 강요하려는것이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공화국은 그에 다 준비되어있다.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순간에 도발을 걸어오는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만을 안기려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기상과 의지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내외호전세력들은 저들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이 가져올 후과를 명심하고 전쟁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 《북의 탄도로켓공격을 〈싸드〉로 막을수 없다》

- 미국군사전문가들이 주장 -

최근 공화국이 진행한 탄도로켓발사훈련과 관련하여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싸드〉로는 북의 탄도로켓공격을 막을수 없다.》는 견해들을 피력하였다.

얼마전 미국항공우주연구기관의 연구원이며 미싸일전문가인 존 실링은 《북이 탄도미싸일 4기를 동시에 발사한것은 한 지점 또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사할수 있는 능력을 파시한것》이라고 자기의 견해를 밝히었다.

그는 《이동식발사대가 서로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있고 수초대에 동시에 발사된것은 북이 한 지점에서 동시에 여러발의 탄도미싸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여러곳에서 동시에 탄도미싸일을 발사하는 능력도 갖추고있다.》, 《북이 궁극적으로 미싸일발사와 관련하여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그 전략

이 어떤 효과를 낼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싸드〉로는 한 지점에서 발사된 여러기의 미싸일을 구별하기 어렵고 또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사된 미싸일을 탐지하려면 레이다를 서로 다른 각도로 재빨리 변환시켜야 하는데 〈싸드〉의 능력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미국인간군사정보업체 《울썬스 에널리시스》의 선임분석관이며 대북군사문제전문가인 조세프 버뮤데스는 《미싸일사격통제체계가 잘 준비되어있는 북은 한 지점에서 동시에 최소 36기의 탄도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충분한 이동식발사대를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북미싸일에 대한 방어체계는 〈싸드〉뿐 아니라 페트리오트, 이지스함 등이 함께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21세기의 악녀 박근혜가 마침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결국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악정,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 박근혜가 응당 제갈길을 간것이다.

박근혜의 공범집단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은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다가 깔려죽게 된 말뚝구리신세와 다를바 없게 되었다.

특히 《친박》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자유한국당》은 《폐가》, 《초상집》과 다름없이 되었다. 박근혜탄핵심판을 앞두고 《탄핵이 인용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것》이니, 《혁명이 일어날것》이니 뭐니 하며 광기를 부리던 우익보수세력들의 입에서도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것이 없다.》는 탄핵이 흘러나오고있다. 악질우익강패들이 《박근혜탄핵》을 위한 국민총결기운동본부의 명칭을 《탄핵무효 국민총결기운동본부》로 바꾸고

《탄핵불복종》 시위를 선동하였지만 집회참가인원이 얼마없고 주동분자들은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걸려들면서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일부 일간망동들이 박근혜에 대한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 청와대에서 쫓겨난 악녀의 삼성동 《사저》를 기우거리고있지만 《십상시》로 조롱받고있는 형편이며 오히려 보수

응당한 말로이다.

이번 탄핵과정을 통해 민족을 반역하고 민의를 짓밟으며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추악한 범죄의 무리, 력사의 퇴물들의 진면모가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박근혜없는 봄을 맞이하자며 130여일이나 즐기차게 이어져온 남조선인민들의 초분투쟁은 역도년과 함께 인간오작품들의 집합체인 보수세력에게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리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지금 《친박근혜파》의 일부 악질들은 백악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박근혜탄핵소추무효 서명운동》이라는것을 벌리는가 하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대구, 경상북도 등지를 싸다니며 보수체결집으로 다시 권력을 찬탈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고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정의와

민심에 파렴치하게 도전해나서는것으로서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악정,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몸서리치는 력사를 어떻게 하나 되살려보려는 구차한 몸부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그것은 최순실과 같은 일개 선무당이 또다시 《국정》을 취락파락, 좌지우지하고 정유라와 같은 특권층의 자식들만 특혜를 누리는 세상을 재현하겠다는것이다.

청와대악녀 하나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해서 우익보수세력의 권력찬탈음모를 간파한다면 또다시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타나게 될수 있다.

력사의 무덤에서 계마라나오려고 최후발악하는 박근혜잔당들이 다시는 머리를 못 쳐들게 철저히 매장해버리는데 엄동추위속에서 1 600만의 힘찬 함성으로 쟁취한 초분투쟁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 길이 있음을 시대와 력사는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오물은 깨끗이 없애야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 오물은 깨끗이 없애야 한다

# 스스로 해체함이 마땅하다

박근혜가 민심의 심판 속에 력사의 무덤속에 사라진 후 남조선의 보수정당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청와대압독사와 공생하여온 저들의 죄악상을 가리우고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보겠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후 서둘러 기자회견을 벌여놓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느니,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느니 뉘니 하며 저들에게 쏠린 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겠다고 노족을 부리는가 하면 뒤끝방에 모여 당선거부위위회를 구성하고 경상남도지사 비루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등 조기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달려들고있다. 그런가하면 초보민심에 합류한 야당정치인들이 부남관계개선을 요구한다고 하여 《중복》, 《친북》 인물들이라고 힐뜯는가 하면 박근혜탄핵을 무효화하여 역도년을 중심으로 보수세력을 재규합하려고 필사적으로 날뛰고있다. 한편 《바른정당》 패거리들은 탄핵당일 《당소속의원들이 몸을 던져 오늘 결과를 만들었다.》느니, 《탈당하여 탄핵을 주도할 때 많은 비난과 질시를 받았지만 다 이겨냈다.》느니 하면서 마치 저들이 탄핵을 《주도》한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자기 당을 중심으로 하여 중도보수세력은 물론 탄핵반대세력까지 규합해 보려고 지도부가 전원사퇴하고 원내대표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기만국을 벌려놓았다. 권력야구에 빠져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마구 날뛰는 일간 망둥이들의 추악한 행실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으로 말하면 박근혜가 한갓 무당해오다가 탄핵위기에 빠지자 탈당늘음을 벌리고 뻘뻘스럽게 《탄핵주도정당》으로 분칭하는것은 역도년의 집권 4년간 《국정》을 파란시킨 공

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국이다. 마치도 자기들은 박근혜와 인연이 없는것처럼 놀아대는 《바른정당》의 추악한 행실은 그야말로 초보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민심의 요구는 역도년과 함께 그의 치마자락에 붙어 온갖 못된짓을 도맡아 수행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정치오물들을 말끔히 쓸어버리라는것이다. 민심의 이러한 요구를 거머거리흥내내며 무시하고 재집권의 기회만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비렬한 행위는 남조선 각계의 조소를 받고있다. 민심은 불의를 용납치 않는다. 박근혜의 공범자, 부역자노릇만 일삼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정치오물들은 민심의 심판대에서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라지는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 초보민심을 따라야 한다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 남조선의 민주정당들은 탄핵에 불복하는 청와대 퇴물을 강하게 몰아대며 《대통령》 선거경쟁에 저마끔 뛰어들고 있다 한다. 민주정당들은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박근혜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것이다.》고 지껄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불복해서저자 《간간인인 박근혜는 13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진실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이 밝혀줄것이다.》고 하면서 《제2의 박근혜정권》을 노리는 보수세력에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로 된다는것은 자명하다. 남조선에서 세기적악녀인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비극적종말을 맞이하면서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서로 물고뜯기하여 여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것이다. 민심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고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때에 당파적이익만을 앞세워 다른 민주정당의 후보를 흠집내려 하고있으니 여론의 눈에 핏빛 보일 리 만무한것이다. 특히 선거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국민의 당》은 《개헌》과 《패권주의청산》을 떠들며 《대선》 구도를 저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국민의 당》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2의 박근혜정권》을 노리는 보수세력에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로 된다는것은 자명하다. 남조선에서 세기적악녀인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비극적종말을 맞은것은 전적으로 엄

동의 추위속에서도 130여 일간이나 즐기찬 투쟁을 벌려온 남조선인민들의 뭉친 힘에 의한것이다. 두달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통령》 선거도 초보투쟁의 승리로 마련된것이다. 남녘의 민심은 민주개혁세력의 단합을 요구하고있다.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한다. 이것은 남조선정치사가 민주세력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권력을 누가 쥐는 가 하는 문제가 이전에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부남관계를 말아먹은 보수세력 대 새 생활, 새 정치를 바라는 진보민주세력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되고있다. 또 그것은 민족을 핵참화속에 밀어넣는 전쟁이나 아니면 평화냐 하는 판가름으로도 된다. 이 시각 남녘민심이 요구하는것은 박근혜탄핵을 한목소리로 웨쳤던것처럼 《정권》교체에서도 보조를 맞추어나가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 탄핵 벼룩도 낚싯대 있다는데...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노는 꼴이 가관이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바쁘게 다음번 권력을 넘보며 선거준비에 부산을 피우고있는 꼬락서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참 련치도 체면도 없고 낮가죽이 품의 발통보다 더 두꺼운자들의 역겨운 것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으로 말하면 역도년과 함께 특대형추문사건을 비롯한 온갖 치떨리는 범죄를 같이 저질러온 공범당이다. 저들이 신주모시듯 해온 박근혜가 지은 죄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당했으면 같이 사라져버려야 하는것이 합목적 《자유한국당》 인것이다. 더구나 언론과 특검조사, 《헌법재판소》의 심리 등으로 박근혜의 엄청난 죄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탄핵당하는 마지막 날까지 역도년을 구구 비호두둔하며 탄핵기각을 목터지게 웨친 추물집단이다. 박근혜와 한바리에 실어 오물통에 처박혀야 할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지금에 와서는 《대선》을 운운하고 이 달말까지는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회뻑게 놀아대고있으니 《지조》도 없고 권력욕에만 환장이 된자들이다. 더우기 사람들을 역스럽게 하는것은 이 당소속 《국회》의원이란자들이 노는 꼴이다. 《바람이 불면 초불이 꺼진다.》는 망언으로 초보민심을 심히 우롱모독했던 장본인, 맛불집회라는데서 박근혜를 사랑한다, 탄핵을 멈추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불복을 선동하던 악질 《친박인물》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목을 빼어들이었으니 말이다. 벼룩도 낚싯대 있다는데 벼룩만도 못한 놈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가 파면당한 이 마당에 와서 그 총실한 노복들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판에 뛰어드는 일이 아니라 할복자살하는 일이다. 그것이 《충절》이 아닌가. 사실 권력욕에 미쳐 《대통령》 선거판에 뛰어들어왔자 민심의 증오와 배격을 받은 《자유한국당》은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도 없고 닭알세제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김춘경

## 특대형범죄에 관용이 있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의 관심이 탄핵당한 박근혜역도에 대한 검찰구속수사여부에 집중되고있다. 《친박근혜파》를 비롯한 일부 보수패거리들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검찰수사는 선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헌법》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을 그 아래의 형사법을 적용해 구속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검찰수사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은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고 검찰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비폐기 등 청와대내에서의 《증거인멸》우려에 대처하여 청와대압수수색에 나설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에서 넘겨받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다는 구실밑에 본격적인 수사에 진입하지 않고있다고 한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남조선 각계층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있다. 박근혜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헌정사상 첫 탄핵(대통령)》, 《가장 불우한 부녀(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것은 제가지른 만고죄악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 박근혜탄핵은 부패무능한 보수 《정권》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시작에 불과할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탄핵당한 박근혜와 함께

공범자들의 범죄를 끝까지 수사하여 사회적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박근혜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이들은 《박근혜탄핵으로 모든것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초보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박근혜의 탄핵으로 식어지면 안된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초보를 더 높이 들고 박근혜구속을 위해 광장에 다시 모이자.》고 하면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여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민심이다. 남조선검찰은 민심의 요구대로 천하의 악녀를 구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레야만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을 비롯한 박근혜의 범죄행위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격노한 민심을 누갓힐수 있다. 더우기 박근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것》이라며 죄행을 끝까지 부인해나서고있는 조건에서 검찰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국 초보민심을 저버리고 박근혜역도를 비호하는 범죄행위로밖에 될수 없다. 반역죄에는 절대로 관용이란것이 있을수 없다. 이미 민심의 버림을 받은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을 비호하는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만일 남조선검찰이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박근혜와 그 패당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격노한 민심의 폭발로 박근혜역도와 함께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서게 될것은 자명하다. 본사기자 김영진

##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박근혜가 12일 청와대에 서 쫓겨나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것》이라며 파렴치한 망발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비롯한 투쟁단체들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박근혜가 국민앞에 열백번 사죄해도 성취하지 않은데 불복종의사를 밝혔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박근혜는 죄값을 치를것이다.》고 규탄하면서 박근혜구속을

## 똑같은 개들끼리의 싸움

니전투구라는 말은 진흙발에서 싸우는 개를 이르는 말이다. 저마다 《정통보수》라고 자칭하면서 서로 물고 뜯으며 날을 보내는 남조선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개싸움이 니전투구를 방불케 한다. 《바른정당》이 창당되었을 때부터 《배신자》, 《이단자》라고 비난해온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박근혜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른정당》은 배신의 정당, 탄핵정당, 배운망덕한 정당이다.》라며 목이 터지듯 고아댔다. 《바른정당》 것들의 악청도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도로친박당), (최순실호당)의 민낯을 로 풀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재판소) 결과에 불복하는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국정) 통단세 뜯으며 날을 보내는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은 해산되는것이 마땅하다.》 남조선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자 이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서로 물고뜯고있다. 《자유한국당》 것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것이다.》, 《정체성이 모호한 (바른정당)의 지지물이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있다.》, 《보수의 적통은 (자유한국당)만 이어갈수 있다.》라고 기염을 토한다. 《바른정당》 패들은 한수 더 떠서 《탄핵안에 찬



성했던 (자유한국당)의 원들은 (바른정당)에 합류하여 보수세력의 길에 나서기 바란다.》, 《(바른정당)은 끊임없이 보수정신을 이어나갈것이다.》고 떠들면서 《자유한국당》의 소속의원들을 회유하고 내부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저마다 제가 옳고 너는 나쁘다며 개싸움질하고있지만 따지고보면 서로 욕할것도 없다. 《자유한국당》도 박근혜부역당이고 《바른정당》도 박근혜공범당이기때문이다. 그놈이 그놈인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바른정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다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아야 한다고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현

악마의 웃음

웃음은 곧 행복의 표정이라는 말이 있다. 하다면 남조선력 사상 처음으로 《탄핵대통령》의 오명을 안고 제집에 들어 서던 날 물기어린 독사의 눈으로 박근혜가 지었다는 웃음도 행복의 표정이었던가. 민심의 저주속에 청와대에서 쫓겨난 가련한 그 처지가 결코 행복일수는 없다. 너무도 격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남조선 각계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마중나온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인물들과 몇몇 안되는 지지자들에게 손까지 흔들며 시종일관 웃음발을 날린 박근혜를 두고 사람들은 《초보적인 량심과 체면마저 깡그리 저버린 악마》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

그렇다. 악마의 웃음이었다. 자기를 탄핵으로 내몬 초불민심에 대한 뿔어번지는 복수심으로 칼을 버리는 사악한 웃음이었다.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한 박근혜의 궤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한 악녀의 이 불복선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파면시킨 사람들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것이다. 자기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계속 불복해달라고 선동해나선 것이다. 탄핵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없이 제가 무슨 죄없는 희생자인듯 머리를 뺏뺏이 쳐들고 세상이 보란듯이 악녀의 웃음발을 날린 박근혜, 그 웃음속에는 칼이 있었다.

독사는 그냥 죽지 않는다는 격언이 떠오른다.

실상 박근혜는 지금 제집에 틀어박혀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거리들, 어중이떠중이 측근들과 《검찰수사》에 대비한 밀담을 수시로 벌리면서 《삼성동림》이라는 조직까지 내오고 이를 거점으로 제년의 감옥행을 막아보려고 골머리를 쓰고 있다고 한다. 한편 극우보수론객들을 내세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재의 판결이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뇌까리는데 대해 한때 그를 주변에서 보좌했던 어느 한 의원은 《침묵보다 못한 말, 마지막까지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무서운 《대통령》 인물은 알았지만 《사악한 대통령》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라와 국민만을 보고 산다.〉 고 했는데 그의 안중에는 오로지 《한중 권력에 대한 회한》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그는 《다른것을 다 떠나서 저때문에 세 사람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들에 대한 《애도》조차 하

지 않았다. 참 놀라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 호 304명 희생자에 대해 눈물을 주르르 흘릴 때 저는 사실 소름이 끼쳤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눈물》

《침묵보다 못한 말》

외에는 흘릴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헌법》의 수호자인 《국가원수》였던 사실이 《재앙》이며 《재난》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박근혜는 《헌재》의 선고에 절대로 승복할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

결정적이라고 할수 없다.》는 등의 탄핵불복여론까지 내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각계는 《박근혜가 사저정치를 시작했다.》, 《파면된 《대통령》이 력사와 국민에 항거하고 있다.》, 《당장 구속엄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해나서고 있다.

마지막숨이 넘어갈 때까지 독을 내뿜는 암독사의 극악한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박근혜를 보며 남조선사람들이 다시금 깨닫는 것이 있다.

이처럼 지독하고 추악한 역적인에게는 추호의 관용과 용서도 필요없으며 오직 단호하게 철추를 내려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민심의 탄핵선고에 불복하여 살길을 찾아보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달리 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련옥



남조선에서 《대통령》권한 대행노릇을 하는 황교안이 박근혜의 동족대결정책을 계속 그대로 답습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근혜의 파면이 결정되자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상황》이니, 《북의 도발가능》이니, 《대응》이니를 떠들어댄것은 그 단적 실례이다.

지난 14일에는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

나타나 《비상상황》이니, 《북의 무모한 도발》이니를 운운하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역설했다고 한다.

황교안의 이러한 망동은 초불민심에 대한 도전이고 동족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 아닐수 없다.

내외에 널리 알려진것처럼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여기저기서 언어들은 풍문에 민간

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쓰는 잡소리를 섞어만든 해피한 고안 품이고 《북붕괴》, 《흡수통일》 등으로 엮어진 친미사대

와 동족대결의 산물이었다.

그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완전결판나 전쟁직전의 살벌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앞에 반통일의 싹을수 없는 죄악을 쌓은 박근혜는 제가 지어 불에 제가 타죽는 꼴이 되어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히었다.

격으로 회세의 추물인 박근혜로 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남조선정국을 《안보위기》라는 상투적수법으로 수습해보려는 가련한 몸부림이다.

뭇매처럼 쏟아지는 세계의 비난과 조소의 방향을 돌려보려는 어리석음의 발상이기도 하다.

그런다고 하여 세계의 면전에 날날이 드러난 박근혜의 추악상을 가리우고 그의 치마바람에 놀아나 동족대결의 칼부림을 하던 부역자들의 죄과를 감출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황교안이 박근혜의 종말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동족대결의 바통을 이어 헤뭇빌수록 대결광녀와 한몸통, 한족속이라는 것만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아직도 눈먼 망아지처럼 대결광녀의 치마자락을 따라다니던 박근혜의 부역자들도 박근혜와 똑같이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남조선민심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박근혜를 따라가는가

평게 배상이라고 하겠는가. 사죄도 배상도 없는 그 《합의》는 일본의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문서인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일개인에 한한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그 《정권》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적정책에 대한 타미고 박근혜 《정권》의 모든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남조선민심의 선고이다.

이었다.

철저히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성노예로, 그 피해자들을 일본군성노예피해자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전범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문제이고 력사와 후대에 대한 관점문제이다.

그러나 역대 남조선의 친일사대 《정권》들은 일본의 눈

군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 《인신매매피해자》라고 모독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 매음행위》,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지열인 범죄자들의 궤변에 동조하는것으로 된다.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은 《사회할 생각이 표출만 큼도 없다.》, 《돈을 받았으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또 자국내에서 독도를 《다게시마》라고 외곡한 력사교육까지 벌리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와 세계인류는 철면피한 일본의 파렴치성과 간교함을 바로 보고 성실한, 진심어린 사회와 반성, 배상을 할 때까지 일본의 범죄추종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신기복

초불민심을 부정하는 일본의 검은 속심

고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의지이다.

그 《합의》라는데서 일본은 《군의 관여하에》라는 명기로 국가의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인 지시에 의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축소, 은폐시키었다.

그러니 그것이 국가적인 사죄가 아니라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위안부지원재단》에 준다는 돈도 《위안부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범죄를 고발하는 상징물을 없애야 주겠다는 돈을 어

박근혜퇴진과 함께 초불집회에서 울려나온 《싸드》배치반대나 《위안부합의제협상》 등의 목소리가 그것을 웅변한다.

남조선인민들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합의》는 날조품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하게는 《위안부》라는 문구다.

《위안부》라는 말자체가 범죄국 일본의 립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전쟁범죄를 따지면서 과거 일제가 떠들었고 군국주의후예들이 쫓겨온 《위안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온것자체가 잘못

치를 보면서, 또 특급범죄자들의 간계에 놀아나 《위안부》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왔으며 박근혜페당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합의》하면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집어넣었다.

그 《합의》가 그대로 실행된다면 력사에는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아니라 《위안부문제》로 기록될것이며 후대들은 일본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쟁당시)위안부는 필요했다.》는 일본의 립장을 긍정하는것으로, 일본

군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 《인신매매피해자》라고 모독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한 매음행위》,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지열인 범죄자들의 궤변에 동조하는것으로 된다.

일본군성노예문제가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은 《사회할 생각이 표출만 큼도 없다.》, 《돈을 받았으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또 자국내에서 독도를 《다게시마》라고 외곡한 력사교육까지 벌리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와 세계인류는 철면피한 일본의 파렴치성과 간교함을 바로 보고 성실한, 진심어린 사회와 반성, 배상을 할 때까지 일본의 범죄추종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